

# 가뭄 해갈될까...내주부터 한달간 장마

## 광주기상청 7~9월 전망...강수량 평년과 비슷

### 9월까지 무더위 이어져...국지성 호우 빈번

올 여름 무더위가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장마는 평년보다 1주일가량 늦은 내달 초 시작돼 한 달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3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7월~9월)'에 따르면 7월과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9월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강수량은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9월에는 평년보다 많을 전망이다. 평년의 월 평균기온은 7월 24.7도, 8월 25.8도, 9월 21.8도다. 강수량은 각각 275.3mm, 260.1mm, 166.9mm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월의 경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가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대체로 흐린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7월 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8월에는 무더위와 습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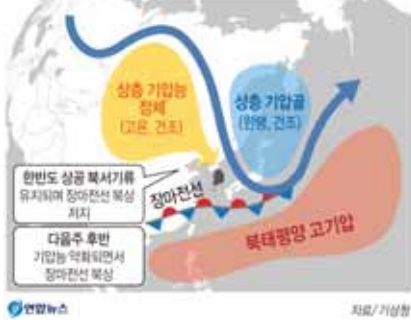
9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해져 그 가장자리에 들다가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되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7월 초 광주·전남지역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평년(6월23일)보다 1주일 정도 늦어진 것이다. 평년의 경우 장마 시작일은 6월23일이며 7월 23일~24일까지 약 한 달간 장마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전선은 우리나라 북동쪽의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남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올해엔 북

### 장마 늦어지는 이유

기상청은 이달 29~30일 제주를 시작으로 7월 초부터 내륙지역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 서쪽~시베리아 대기 상층까지 발달한 기압능이 정체돼있고, 한반도 부근으로는 건조한 북서기류가 유입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상을 막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 같은 기압배치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주 후반부터 기압계의 흐름이 빨라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상층의 건조한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장마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은 주 후반(29일~30일) 북상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7월 초에는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내륙에 점차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며 "향후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장마전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전남도 산간·도서 식수 공급

전남도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생수 공급을 요청해 가뭄과 폭염으로 지하수까지 고갈된 산간·도서에 물을 공급했다.

전남도는 25일 "지난달 31일부터 시간제 급수를 실시하는 보성 득량면 호동마

을을 비롯해 화천면 원서당마을, 겸백면 상가마을·하덕마을, 진도 조도면 대마마을 등 5개 마을에 먹는 물 13.8t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들 마을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 식수 개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주민들이 식수 마련에 큰 불편을 겪었다. /윤현석기자chadol@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0, 해질녘 19:51, 달뜨기 07:31, 달지기 21:45

### 드디어-비

광주·전남지역에 10~40mm의 비가 내리겠다.

### 지역별 날씨(°C)

|    |       |     |       |     |       |
|----|-------|-----|-------|-----|-------|
| 광주 | 22/27 | 보성  | 21/26 | 순천  | 21/25 |
| 목포 | 21/26 | 여수  | 21/24 | 영광  | 20/26 |
| 여수 | 21/24 | 영광  | 20/26 | 진도  | 20/25 |
| 나주 | 20/26 | 진도  | 20/25 | 전주  | 22/26 |
| 완도 | 21/25 | 전주  | 22/26 | 군산  | 21/26 |
| 구례 | 19/27 | 군산  | 21/26 | 남원  | 20/26 |
| 강진 | 20/26 | 남원  | 20/26 | 홍산도 | 20/25 |
| 해남 | 20/26 | 홍산도 | 20/25 | 장성  | 20/26 |



### 바다 날씨

| 지역 | 방향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 남동 | 동  | 0.5     | 동  | 0.5     |
|    | 남서 | 남동 | 0.5~1.0 | 남동 | 0.5~1.0 |
| 남해 | 남동 | 동  | 0.5~1.0 | 남동 | 0.5~1.0 |
|    | 북동 | 북동 | 1.0~1.5 | 북동 | 1.0~1.5 |
| 제주 | 북동 | 북동 | 1.0~1.5 | 북동 | 1.0~1.5 |

### 생활지수

|      |    |
|------|----|
| 경고   | ☀️ |
| 식중독  | 🦠  |
| 높음   | ☀️ |
| 자외선  | ☀️ |
| 높음   | 🌪️ |
| 피부질환 | 🦠  |

### 물때

| 목포 | 간조    |       | 만조    |       |
|----|-------|-------|-------|-------|
|    | 시각    | 수위    | 시각    | 수위    |
| 여수 | 08:59 | 03:50 | 21:03 | 15:52 |
|    | 04:29 | 10:36 | 16:36 | 23:12 |

### 주간 날씨

| 27(화) | 28(수) | 29(목) | 30(금) | 7/1(토) | 2(일)  | 3(월)  |
|-------|-------|-------|-------|--------|-------|-------|
| ☀️    | ☁️    | ☀️    | ☁️    | ☔️     | ☔️    | ☀️    |
| 19/25 | 21/30 | 21/29 | 21/30 | 22/30  | 22/30 | 22/30 |



'제62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발표회·시상식'이 2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렸다. 최고상 수상자들과 광주일보 김여승 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고사리손 연주부터 고교생 무용까지...꿈은 빛났다

### 62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시상식

초등학교 고사리 손으로 선보이는 피아노 연주부터 고등학교의 단아한 한국무용까지. 지난 24일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제62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시상식'은 한국 예술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국악·음악·무용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학생 30여명이 무대에 올라 학부모, 교사, 친구, 일반 시민 등에게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다. 1부에서는 발레창작 부문 이아인(동림

초 2년) 학생과 한국무용전통 부문 김민경(광주예고 3년) 학생이 나섰다. 발레복을 입은 이아인양의 귀여운 몸짓과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김민경양의 공연에 관객들은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2부 첫 무대는 단체 최고상을 받은 송원초등학교 사물놀이팀(공민규 외 10명)이 올라 흥겨운 국악을 선사했다. 이어 정연

우, 김윤서, 장서운, 김사랑, 이지희, 이동화, 정승민, 허소을, 이진화, 이호준, 강유진 등 총 12팀이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2부가 끝난 후에는 최고상 시상식이 열려 학생들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박수송원 갈채를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광주송원초, 동아여중, 광주예고가 종합최고상을 받았으며 28명의 개인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한편, 로비에는 미술·칸반화·시·산문 최고상 작품이 전시됐다. /김홍희기자 kimyh@

## 죽산보 수질 을 두번째 '관심' 발령

### 승촌보도 남조류 개체수 폭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반복되던 영산강 녹조현상이 올 여름도 되풀이되고 있다. 녹조가 기준치 이상 번성한 영산강 죽산보(나주시 다시면) 구간에는 올 여름 들어 두 번째로 수질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승촌보(남구 승촌동) 구간도 남조류 개체수가 폭증하고 있다.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2일 영산보 죽산보 구간에 수질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죽산보 남조류 개체 수는 지난달 12일 m당 700개에 그쳤던 것이 지난 19일

채취한 강물을 분석한 결과, m당 남조류 개체수가 1만4020개로 치솟으면서 환경당국이 수질예보 관심단계를 발령한 것이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8일 죽산보 구간의 남조류 개체수가 치솟자 수질예보 관심단계를 발령했다가 닷새 만에 해제한 바 있다.

승촌보 구간 남조류 개체수 증가도 예상치 못했다. 승촌보 구간의 남조류 개체수는 지난달 12일 m당 375개였던 것이 불과 1주일 사이(19일) 4140개로 크게 늘어난 등 녹조가 번성하고 있다. /김홍희기자 khh@kwangju.co.kr

## 세월호 침몰 원인 원점부터 재조사

### 2층 화물칸 용접 작업중 화재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가 원점부터 다시 시작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는 지난 23일 선체조사위원회 3차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의 침몰원인에 대해 기존 수사와 재판 결과를 전제하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조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선조위는 목포선항에서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정

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급진적 항적 및 횡경사에 관한 조사'의 건을 의결했다. 이 조사는 세월호 항해기록과 세월호의 변형 이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한 세월호의 침몰 과정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4일 목포선항에 거처된 세월호 2층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9분께 2층 화물칸에서 발생한 화재는 화물칸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산소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승계

## 한경경영지원단이 쉽게 만듭니다

" 기업승계 대상업종이 아니었던, 비업무용 자산 과다 기업 등에 대해서 한경경영지원단이 수많은 자문경험과 사례를 통해 연구하고 검증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합니다.

문의 1522-0522

clean.hankyung.com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경영지도사·COT·TOT

기업을 빛내는 생각 **한경** 경영지원단